

## 지방자치·종합

### 한미FTA 이것만은 꼭 보완해야



최인기 농수산위원장

-한미 FTA 비준안을 바라보는 농어민의 시름이 깊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자동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등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이달 내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 양국 간의 이익 균형을 바로잡는 한편 농수산업, 중소기업, 골목상권 등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는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최인기(농수산식품위), 김동철(외통위), 김재균(지경위) 의원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밭농업·수산업도 직불제 적용해 줘야”

차, 섬유 등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농어민과 중소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려면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농수산 분야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농어업 분야 피해 보전 대책

을 세운다고 하나 이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2.5조원의 FTA 대책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으나 내년 FTA 예산은 1조 8594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불오불급한 예산(5835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 지원은 1조 2천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에서 피해보전 대책으로 1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진은 있는지,

▲일부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긍정 겸토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이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농어민의 피눈물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13가지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소득보전 직불제 개선 방안(발동 기준 및 발동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져야 실질적 피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김동철 외통위 간사

-한미FTA의 근본적 문제점은,

▲재협상은 없다던 이명박 정부가 폐주기식 양보 끝에 내놓은 것이

지금의 누더기 FTA다. 손해 보는 FTA일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농업과 중소상공인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부자 FTA’며, 우리 현법 위에 군림하는 ‘주권침해 FTA’다. 더구나 피해 대책조차 없는 ‘준비 안 된 FTA’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 같은 손해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요구했으며 중

소상인보호장치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이 한미 FTA로 무효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역진 불가조항과 같이 우리나라의 이의 또는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10+2 재재협상’을 제기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존 국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대책 효과 유

지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 투자자국가소송제 보완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피해 대책은,

▲민주당의 ‘10+2안’에 대해 한

나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야당이 제시한 재재협상 항목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도 충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의 처리 입장에 대한 대책은,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마트·SSM 등록제, 허가제로 바꿔야”



김재균 지경위원

-한미FTA 체결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한미FTA가 시행되면 중소상

공인의 보호장치인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최대 18만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2만5000명이 실직하고 11조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분석도 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에 요구,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오는 12월 23일 나오는 결과를

봐야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미FTA가 시행되더라도 두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고 중소상공인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마트와 SSM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위원이 발

의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서비스자

유무역협정(WTO, FTA 등)으로 인한 중소상인의 피해를 직간접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피해구제법’도 입법 완료해야 한다.

-한나리당과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하는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 모두 앞의 대안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대책으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역부족이다.

-여당의 한미FTA 처리에 대응하는 항후 대책은,

▲정부가 한미FTA 번역문 오류 정오표라든지, 이행법안의 이해득실 분석내용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한미FTA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단지와 국제휴양타운 등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 마리나시설 확충과 해양레저 장비산업, 도서 교통 난 해소, 수상비행장 건설 등에 405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355억원을 들여 어촌체험마을이나 갯길 탑방로 해양관광 소프트웨어로 구축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1조 4170억원(국비 4조 8640억, 도비 7419억, 시·군비 1조 279억, 융자 932억, 민자 4조 6900억)을 들여 7개 추진전략 22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우선, 살기좋은 어촌과 도서 건설을 위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어촌복지 인프라 확충에 7450억원을 들여 선착장과 방파제, 해안도로, 물양장, 다기능 부산교 등을 확충하고,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식수원 개발 등에 8200억 원을 지원하 할 계획이다.

또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9819억 원을 들여 해양리조트(랜선)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 마리나·수상비행장·양식섬 조성 전남도 ‘살맛나는 어촌’ 11조 투입

전남도가 10조원대 예산을 투입, 살맛나는 어촌 건설에 밝猩고 나선다. 전남도는 18일 2015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 ‘제2차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1조 4170억원(국비 4조 8640억, 도비 7419억, 시·군비 1조 279억, 융자 932억, 민자 4조 6900억)을 들여 7개 추진전략 22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항만물류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양항을 다목적 국제항으로 전환하고, 배후 부지에 화물창출 기반시설 등을 위해 2조 1832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물동량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추진한다.

목포신항 내 물류특화단지 조성, 배후단지 개발, 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3738억 원이 투입되며, 완도 무역항 개발 등 13개 사업에도 833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전복, 해삼,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양식섬 조성 등에도 15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9819억 원을 들여 해양리조트(랜선)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간사인 한나리당 유기준 의원(원쪽)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오른쪽)과 18일 오전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한미FTA 비준안 논의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10월 꼭 처리” “先대책 우선”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처리 재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최대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파행했다. 여는 오는 20, 21일 양일 간 외통위 위원의 ‘끝장 토론’을 다시 열기로 했으나 한미 FTA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나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 간 이의 규

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한나리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시 당협위원장회의에서 “우리는 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업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눈다.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과하게 하여 비정(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신체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풀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권태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2) 음허화동(陰虛火動)

정기적인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리와 심장의 화를 자극으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짐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번열이 생기며 간혹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3) 심답하겁(心虛怯)

몹시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악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맨시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환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조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4) 간양상형(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장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5) 위증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꼴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놓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대번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한다. 만성 위염이나 위수증 등에서 볼 수 있다.

### 불면증 치료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물이 피곤할 경우는 물의 원리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주기 하고, 신체증상이 심한 경우는 대증치료를 통해 신체증상을 우선 개선시켜준다. 민·양·정신질환의 경우는 질환 치료를 먼저해야하며, 노인인 경우는 물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을, 음허화동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자탕이나 기미소요산을, 심답하겁으로 오는 경우는 기미 온탕탕을, 위증불화로 오는 경우는 항사양탕을 각각 사용한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

진료 과목

• 핫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